

##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검증-

이정지\*\* · 신경일\*\*\* · 최순옥\*\* · 김숙남\*\* · 이부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그간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던 각 분야와 계층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 여성, 아동, 장애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국가의 관련 정책 부재가 서로 맞물려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여성들에게 마저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IMF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실직률이 증가하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장 실직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다른 실직자에 비해 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정을 주도하고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여성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여성가장 가족은 현대의 여러 가족 유형 중 그 증가율이 두드러진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배우자와의 사별, 장기간의 별거, 이혼, 유기 및 배우자의 정신적·

경제적 무능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사별과 이혼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가장이 겪는 고통에는 가족 부양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신들의 건강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가까웠던 중요한 관계와 아내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 그리고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축소, 상실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사회적 고통 등이 있다(강희정, 1996; 광배희, 1994; 김영희, 1996; 나인옥, 1998;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88).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고통 외에도 "편모가정", "결손가정" 또는 "과부" "이혼녀" "복 없는 여자" 등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과 편견으로 인한 고통은 여성가장이 되면서 겪는 실제적인 고통을 훨씬 능가한다(김혜련, 1993). 이른바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역할만을 내면화해 온 여성에게 가장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처지는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학습해야 하는 일종의 위기상황이다. 여성가장이 된 직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우울과 절망, 고독에 빠진다(강 인, 1998; 광배희, 1994; 안명자, 1994). 그러나 모든 위기나 과도기가 그러하듯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 여성은 새로운 성장과 자아확장의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만성적인 피해의식에 빠져 정신병적 상태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으며 그 피해가 자녀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가장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여성가장 가족의 해체를 막아 여성가장 자신은 물론 그 자녀의 성장을 위한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복지에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실직 여성가장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제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실직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단기간의 기술훈련에 그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그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더욱 빈약하다(방선옥, 1992).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외국의 경우 여성가장들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조집단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으나(Bankoff, 1983; Raschke, 1977; Vachon, 1980),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연구(김순옥, 1993; 김정자, 1985; 변화순의 1990; 정진영, 1992)는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조성혜(199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성혜(1998)의 연구에서는 모자가족의 자조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주로 강의로 구성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상자들도 실직여성 가장이 아닌 모자가족의 여성이므로 취업여성이 많았으며 집단 프로그램의 초점도 여성이 아닌 가족에 있어 여성가장 자신에 대한 심리적 치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실직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심리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실직 여성가장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그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실직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실직 여성가장 : 가정을 주도하고 생계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으나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00구에 위치한 <일하는 여성의 집>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기술훈련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들로서 사별, 이혼, 배우자 무능력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들을 말한다.

2) 집단상담 프로그램 : 여성가장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V. Frankl의 의미요법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20시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의 의미 : 삶의 목적 또는 인간존재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가치로운 삶인가? 에 대한 답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희망과 목적의식이 포함된다(Nielsen, 1980).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의 생의 의미 측정 도구(자아 존중감, 생의 목적, 희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서는 생의 의미에 대한 프랭클(V. Frankl)의 관점을 수용하여 본 연구팀이 개발한 생의 의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미간행). 새롭게 개발된 생의 의미 척도의 하부요인은 자아수용,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로 구성되었다.

## II. 문헌 고찰

### 1. 여성가장의 현실

여성가장이란 여성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가족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가정을 주도하고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이운석, 1995). 어머니와 자녀로만 구성된 여성가장 가족은 1995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약 0.4%인 51,925 가구에 해당된다고 한다(통계청 : 보건복지부, 1995). 여성가장의 발생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는 사별과 이혼에 의해서이다. 사별로 인한 여성가장의 발생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률 증가에서 기인한다(안명자, 1994; 이윤석, 1995; Janet, 1986). 또한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장의 발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률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돌아감에 따라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김진섭, 1996).

여성가장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부양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빈곤층으로서의 여성" 또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이다. 결혼 자체가 경제적 자원의 원천이었던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장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IMF 상황에 의해 발생한 실업가족 중에서도 특히 여성 실직가장은 다른 실직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노동부, 1999), 이로 인해 자녀들의 삼급학교 진학포기가 12.3%나 되어 빈곤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미래의 기회마저 박탈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세습화까지 우려되고 있다(성정현, 1998; 안명자, 1994).

여성가장이 겪는 두 번째 어려움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대두되는 정서적인 문제이다.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홀로된 여성들은 절망감과 부담감,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며 매우 우울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며(한국여성개발원, 1988),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고율이나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ve & Shin, 1989). 남편 없이 홀로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한 상실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실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생활사건 중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심각한 상황적 위기사건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사회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여성가장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비정상적인 여성" 혹은 "복 없는 여성"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 더욱 큰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Goetting, 1980).

여성가장이 겪는 세 번째 어려움은 여성가장에게 주어지는 역할변화의 문제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

분의 성인 여성들은 여성의 심리적 성숙과 적응이 어머니, 아내라는 여성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규범아래서 성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자기 존중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남편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치에 의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외적·내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어려움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문제이다. 여성가장들은 정신적, 실제적 도움을 제공받을 다양한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혼한 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꺼려하여 기존의 인간관계마저 단절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선, 1991).

결국 홀로 된다는 것은 결혼생활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여성가장으로서 적응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별로 인해 홀로 된 여성은 격렬한 비통의 시기를 거치면서 죽은 사람과의 정서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Janet, 1986).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홀로된 여성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혼 후 2-5년이 지나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독립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방선옥, 1992). 이렇게 적응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성가장들은 격렬한 위기상실 단계가 지나면 위기를 극복하고 현실을 용납해 가면서 살아가나, 그렇지 못한 여성가장들은 상실로 인한 정서적인 반응이 만성화되어 우울증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자아의 붕괴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까지 나타낼 수 있다.

여성가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심리적인 요인은 보다 적은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직접적,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의 접근은 전문가가 개입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자조집단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장 가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제도는 사실 대단히 부족하며, 특

히 여성가장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가가 개입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더욱 빈약한 상태이다.

## 2. 생의 의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인생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존의 전체, 인생의 총체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닐슨(1980)은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도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가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생의 의미란 인생의 제가치 속에서 경험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면 인간이 가진 최상의 가치나 목표 또는 최고의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Hessen, 1994).

생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종종 외부세계의 사건이나 체험에 의하여 환기되며, 여러 가지 실패나 불운, 빈민과 고통, 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제기된다. 삶에 대한 공허감, 권태감, 의미와 가치상실로 인한 불안과 고독을 V. Frankl은 실존적 공허 또는 삶의 무의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시 나치수용소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Frankl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운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는 자유를 제외하고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였다. 즉, 인간은 실존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 다시 말해 영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영적 생존경험을 토대로 의미치료를 창시한 Frankl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미를 추구할 내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찌 수용소 생활이라는 극한 고통과 한계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것은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및 태도적 가치이다.

첫째, 창조적 가치는 창조적인 활동(노동, 취미, 임무에의 열중)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이다. 즉, 창조적인 가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인식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험적 가치는 세상의 경험(예술작품,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발견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동과는 무관하게 삶의 양상을 강도있게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가치 중 가장 위대한 경험은 성숙한 사랑으로서 상대방의 유일성을 알며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보는 것이다.

셋째, 태도적 가치는 인간이 곤경에 처했거나 또는 절망적인 상황속에서,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내적인 자유)를 변화시킴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고통 그리고 죄의식 및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실현할 최종적인 기회인 것이다. 즉, 태도적 가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운명을 수용하고 고통을 견디어 내는 용기 그리고 불행 앞에서 보이는 의연함으로 나타난다. Frankl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태도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서 극한 상황에서 조차 인간의 실존은 의미와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데는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일단 발견한 것은 지속시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롭게 실존상황에 맞서서 그 속에서 어떤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듯 생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특히 결혼생활의 종말을 맞이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가장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가장이 된 직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우울과 절망, 고독에 빠진다(강인, 1998 ; 안명자, 1994 ; 광배희, 1994).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생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나 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고병학, 1985 ; 성정현, 1998), 암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정지, 1995), 그리고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과도기에 선 사람들(김영혜, 1995)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로써 의미의 결핍으로 인해 실존적 공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로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대상자들의 건강에 대한 지지자 및 유지자로서 대상자들이 질병과 고통속에서도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Travelbee(1972)는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여성가장들이 배우자의 상실과 그로 인한 역할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가지는 우울 상태를 인생의 전환기에 있을 수 있는 실존적 공허 상태라 보고 이를 극복하고 자기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의미치료에 기초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하여(고병학, 1985 ; 이정지, 1995)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후 실제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는 생의 의미 수준의 향상으로 검증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군 전후설계(singl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00구에 위치한 <일하는 여성의 집>, '실직 여성가장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들로서 본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하여 동의한 사람들로 하였다. 1차 프로그램 대상자는 11명, 2차는 8명, 3차는 12명, 4차는 1이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중 탈락자는 1명도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

특성	구분	빈도 or 평균
연령		39.36
종교	유	39
	무	5
교육정도	고졸이하	38
	대졸이상	6
결혼상태	이혼	25
	사별	8
	*기타	11

\* 배우자의 정신적, 신체적 질환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가장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1999년 3월 6일에서 10월 9일까지 각 프로그램 실시 직전·직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일하는 여성의 집>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협조를 받았다.

#### 2)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자료수집

(1)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의 목적, 자아존중감, 희망을 측정하였다.

(2) 1, 2차 프로그램 실시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와 <일하는 여성의 집> 담당자(사회복지사) 및 연구진들이 프로그램 진행내용과 절차에 대한 토의과정을 통해 1, 2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기존 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새로이 개발하였다.

#### 3)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단계

각각 다른 집단에게 2회에 걸쳐 수정·보완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 개발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 4. 연구 도구

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구인 생의 목적, 희망 및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생의 목적 : 생의 목적 측정은 Crumbaugh와 Maholick(1969)가 개발한 생의 목적 척도 중 첫째 부분인 태도 척도 20개 문항(4점 척도)으로 이정지(1995)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점수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목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 희망 : 희망 측정은 Nowotny(1989)가 개발하고

최상순(1990)이 번안·수정한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확신, 타인과의 관계, 미래의 가능성, 영적 신념, 능동적 관여, 내적 동기 등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된 총 29 문항(4점척도)의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의 범위는 최소 29점에서 최대 1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었다.

(3)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 (1967)가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를 김경연(1987)이 번안·수정한 총 25 문항(4점 척도)의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의 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이었다.

2) 개발된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는 본 연구팀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새로 개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Crumbaugh & Maholick(1969)가 개발하고 김(1990)이 번안한 '생의 목적 측정 도구(PIL)'를 제외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도구는 생의 의미라기 보다 실존적 공허를 측정하는 것이며, 생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 중 생의 목적 요인 만이 강조되어 있고, 실시과정에서도 문항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대상자의 반응이 많아 생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하게 되었다(미간행).

(1) 생의 의미 : 생의 의미 측정은 V. Frankl의 관점을 수용하여 생의 의미의 하부요인인 자아인식 및 수용(18문항), 창조적 가치실현(14 문항), 경험적 가치실현(6 문항), 태도적 가치실현(25 문항)으로 구성된 총 63문항(4점 척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점수의 범위는 최소 63점에서 최대 25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전 다양한 집단(남, 녀, 대학생, 실직여성가장, 대학생 이상 다양한 연령층) 351명을 대상으로 구한 도구의 설명력은 63%, Cronbach's alpha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실직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1)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생의 의미에 대한 V. Frankl의 이론을 토대로 자아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 실현, 경험적 가치 실현 및 태도적 가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20시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생의 의미에 대한 V. Frankl의 이론으로서 그는 생의 의미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창조적 가치 실현, 경험적 가치 실현 및 태도적 가치 실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가치의 실현을 기초한 단계로서 자아의 인식 및 수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정소영, 1985) 구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아인식 및 수용과 창조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생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참여자들간에 공통점을 찾아 보고 자기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고, 그리고 태도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생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와 함께 자신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통찰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주 진행은 부산00대학교 겸임교수이며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이 있는 본 연구자들 중 1인이 맡았으며, 보조진행은 부산00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며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3인(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전공교수) 중 2인과 부산 일하는 여성의 집 담당자(사회복지사 2급) 1인이 맡았다. 생의 의미에 대한 강의는 보조진행자 중 정신간호학을 전공한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효과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는

<1차>

회기	날짜	목표	내용
1회	3월 6일 오전 9 - 오후 1	친밀감 형성과 인생의 목표 결정 (창조적 가치실현)	오리엔테이션 별칭 짓기와 소개 인생목표 정하기
2회	3월 13일 오전 9 - 오후 1	확고한 인생의 목표 정하기 (창조적 가치실현)	인생목표 발표하기
3회	3월 20일 오전 9 - 오후 1	억압된 과거 감정 내놓기 (태도적 가치실현)	인생곡선 그리기 *지우고싶은 페이지
4회	3월 27일 오전 9 - 오후 1	자기수용과 집단 유대감 형성 (자아인식 및 수용 경험적 가치실현)	현재 가진 고민나누기, 해결책 찾기
5회	4월 3일 오전 9 - 오후 1	자존감 향상, 관계증진, 마음 닫기 (자아인식 및 수용)	자기장점 찾기 이불 덮어주기  마무리

\* 지우고 싶은 페이지는 전체집단을 3-4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활동은 모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2차>

날짜	시간	목표	내용
6월 26일	오전 9 - 12	친밀감 형성과 마음 열기	오리엔테이션 별칭 짓기와 짝 소개
	오후 1 - 5	자기 탐색 (자아인식과 수용 경험적 가치실현)	중요한 사람 그리기 나의 인생그래프
	오후 6 - 12	억압된 감정 해소 (태도적 가치실현)	신뢰산책 빈 의자
6월 27일	오전 8 - 12	자기수용과 인생목표 정하기 (자아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시선 맞추기 선택하기 : 선택 당하기 인생목표 정하기
	오후 1- 4	관계증진 마무리	이불 덮어주기 마무리

\* 1박2일 마라톤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표 2>, <표 3>과 같다.

1차 프로그램 실시후 자아존중감은 실시전보다 높았다. 생의 목적은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실시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희망은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1)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두 차례(3, 4차)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2.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2) 3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3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2> 1차 실험 전·후 자아 존중감, 생의 목적, 희망의 차이 검증

N=11

변수	실험전중앙값(범위)	실험후중앙값(범위)	Z	p
자아존중감	62.50(50-68)	65.50(55-71)	2.10	.035
생의 목적	55.50(44-67)	57.00(45-68)	1.89	.058
희망	87.00(76-97)	85.50(80-92)	.35	.726

<표 3> 2차 실험 전·후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 희망의 차이검증

N=8

변수	실험전중앙값(범위)	실험후 중앙값(범위)	Z	p
자아존중감	59.00(48-76)	60.50(54-76)	2.02	.043
생의 목적	52.50(42-75)	54.00(47-58)	.77	.443
희망	87.00(76-100)	88.00(74-100)	.17	.865

<3차, 4차>

날짜	시간	목표	내용
9월 11일 (10월 8일)	오전 9 - 12	친밀감 형성과 마음 열기	오리엔테이션 별칭 짓기와 소개 공동집 찾기
	오후 1 - 5	자기 탐색 (자아인식 및 수용 경험적 가치실현)	역할점검하기/중요한 사람 그리기 ※나의 인생그래프
	오후 6 - 12	억압된 감정 해소 (태도적 가치실현)	신뢰산책 생의 의미 나누기 빈 의자
9월 12일 (10월 9일)	오전 8 - 12	자기수용과 인생목표 정하기 (자아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사물과의 대화 선택하기 : 선택 당하기 강의(생의 의미)
	오후 1 - 3	관계증진 마무리	이불 덮어주기 나의 각오 마무리

\* 1박2일 마라톤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3차 프로그램 실시 후 창조적 의미와 태도적 의미가 실시전보다 높았다.

3) 4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4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4차 프로그램 실시 후 창조적 의미는 실시 전보다 높았다.

V.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실직 여성가장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총 20시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과정(1, 2차 프로그램)과 개발된 프로그램 효과 검증과정(3, 4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생의 의미에 대한 V. Frankl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아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및 태도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결혼상태는 이혼이 57%, 사별이 18%, 배우자 무능력이 25%로 이혼으로 인해 여성가장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문헌들이 이혼과

<표 4> 3차 실험전·후 생의 의미 차이 검증

N=12

변수	실험전중앙값(범위)	실험후중앙값(범위)	Z	p
생의 의미	170.00(142-194)	172.00(160-208)	2.13	.033
자아인식 및 수용	52.00( 36- 56)	52.00( 42- 56)	1.34	.178
창조적 의미	34.00( 29- 40)	39.00( 32- 45)	2.36	.018
경험적 의미	18.00( 10- 12)	18.00( 14- 22)	1.09	.272
태도적 의미	73.00( 62- 81)	74.00( 67- 85)	2.45	.014



<표 5> 4차 실험전·후 생의 의미 차이 검증

N=13

변수	실험전중앙값(범위)	실험후중앙값(범위)	Z	p
생의 의미	178.00(166-220)	183.00(161-225)	2.47	.013
자아인식 및 수용	52.00( 45- 54)	52.00( 42- 62)	1.70	.089
창조적 의미	34.00( 31 -46)	39.00( 31- 52)	2.52	.012
경험적 의미	18.00( 15- 23)	18.00( 15- 24)	.34	.733
태도적 의미	73.00( 66- 99)	74.00( 70- 95)	1.06	.288

사별이 여성가장이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안명자, 1994; 이윤석, 1995; Janet, 1986).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프로그램 실시 결과 자아존중감에서만 실험 전·후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생의 목적 검사에서 실험후 평균(57.50)이 실험전 평균(55.20)보다 다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인격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본 연구의 5주, 20시간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가장들이 함께 모여 고통을 나눔으로서 자신의 문제나 고통이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도 장점과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미간호 요법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얻지 못하였던 이정지(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간 차이는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인 정상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정지(1995)의 연구에서는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고 광범하여 변화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생의 목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11명이라는 적은 수였으므로 충분한 대상만 확보한다면 유의한 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생의 목적과 의미발견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이정지(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희망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로 한 이정지(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5주간 매주 4시간씩 실시하였던 본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과 취업을 질실히 원하고 있는 대상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1차 프로그램이 5주간 지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상들의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마치는 시점과 본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여 현실적인 취업문제가 희망점사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희망척도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및 확신, 타인과의 관계, 영적 신념, 능동적 관여, 내적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최상순, 1990; Nowotny, 1989) 다분히 관념적인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취업의 어려움이 관념적인 희망을 높히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프로그램 실시결과 자아존중감에서는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생의 목적 및 희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온 것은 집단상담의 치료 효과로서(최해림과 장성숙, 1993)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상자들에게 자신만 불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 고통을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를 준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의 목적과 희망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차부터 프로그램이 1박 2일의 숙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여성가장인 대상자들이 자녀문제, 집에 대한 걱정, 두려움(가정의 장소에서 외박한다는 것)을 가져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으며 특히 초반부에는 방어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과정인 3차 프로그램부터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생의 의미검사를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생의 의미와 창조적 의미 및 태도적 의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경험적 의미와 자아인식 및 수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

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자아인식 및 수용), 새로운 목표와 미래를 지향하고(창조적 의미), 고통에도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지만(태도적 의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므로 만남을 특별히 강조(경험적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와 특히 본 3차 프로그램에는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심각한 상처를 가진 대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이러한 대상자들의 특성상 문제로 인해 경험적 의미와 자아인식 및 수용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집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종일관 매우 지지적이고 우호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였다. 따라서 심각한 상처를 가진 대상들은 집단 프로그램 전에 개인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Yalom, 1995).

4차 프로그램 실시결과 전체 생의 의미와 창조적 의미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자아수용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적 의미와 태도적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차 집단의 경우 참가자 모집 공고가 늦어 프로그램 실시 하루 전에 참가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일하는 여성의 집 관계자들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모아 실시되었다. 따라서 집단원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여 집단의 분위기가 다소 서먹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개방을 꺼리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태도적 의미에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경험적 의미에서도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집단 전체의 분위기는 다소 서먹하였지만 자신의 문제나 불행에 대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졌을 것이므로 자아수용에서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3차와 4차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지만 집단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으며 이것이 프로그램의 상이한 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대상들의 친밀감 차이를 들 수 있다. 3차 집단 참가자들은 두 개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수강자들이어서 비교적 서로에 대해 지면이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4차 집단 참가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선정되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적었으며 신뢰도 또한 적었다.

둘째, 대상들의 동기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3차 집단은 일주일 전부터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가 나가 구성원들이 주말을 기다리면서 집단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유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4차 집단의 경우 기관의 공적인 사유로 대상자들이 대거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다른 여러 집단에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루 전날 참가를 권유받은 구성원까지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가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생의 의미 하부영역에서 창조적 의미와 태도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경험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경험적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직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부산시내 00구에 위치한 <일하는 여성의 집>, '실직 여성가장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으로서 본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사람 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기간은 1999년 3월10일에서 10월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생의 목적, 자아존중감, 희망 및 연구자들이 개발한 63문항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미간행)이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Cronbach's alpha로 구한 신뢰도는 생의 목적이 .88, 희망이 .79, 자아존중감이 .76, 생의 의미가 .95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10.0WIN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프로그램은 친밀감 형성과 마음열기, 자기탐색, 억압된 감정해소, 자기수용과 인생목표 정하기, 관계 증진 및 마무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시간이 소요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36세이며, 학력을 고졸 이상이 86%, 대졸이상이 14%였고 결혼상태는 이혼이 57%, 사별이 18%, 기타(배우자 무능력자)가 25%였다.
3.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

증감은 실시전보다 높았고 생의 목적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은 실시전보다 높았다.
5.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3차 프로그램 실시 후 창조적 의미와 태도적 의미가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증가하였다.
6.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4차 프로그램 실시후 창조적 의미가 실시전보다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여성 가장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은 기술훈련이나 생계비 보조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 및 조력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 제 언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과 여성가장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인 것과 함께 심리적인 지원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여성가장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가장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내지 사별로 인한 상처가 여성가장 못지 않게 클 수 있다. 부모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고 편모 자녀로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 아버지나 남성의 역할모델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다루는 집단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학습을 돕고 결손을 보충해줄 수 있는 각종 학습 보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홀로된 여성가장들이 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빈곤의 장기화, 세습화를 막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조기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여성가장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실제 여가장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광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강 인 (1998).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스트레스와 적용.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강희정 (1996). 홀로된 여성의 재혼의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학위논문.

고병학 역(1985). Fabry, J. B.(1974). The Pursuit of Meaning : Viktor Frankl, Logotherapy and Life. CA : Hillsborough 94010. 의미치료. 서울 : 양영자.

곽배희 (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존감,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박사학위논문.

김경옥 (1990). 당뇨병 환자의 삶의 의미와 영적고통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옥 (1993). 이혼대책에 관한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김오남 (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김영혜 (1995).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20대 미혼여성의 삶의 목적,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석사학위논문.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정자 (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1). 한국여성개발원.

김진섭 (1996). 사회변동과 이혼률추이분석. 서울대석사학위논문.

김혜련 (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본 거부장적결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인옥 (1998). 이혼가정 모자간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동부 (1999). '99 전국 일하는 여성의 집 권장 워크샵 :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사례.

도복륜 외 9인 (1990). 최신정신간호학. 서울, 현문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여성특별위원회 소식(2).

방선옥 (1992). 이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대석사학위논문.

변희순, 윤영숙, 강선혜 (1990). 한국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성정현 (1998). 성역할태도와 이혼여성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안명자 (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 감.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 이봉우 역 (1980). Frankl, V.(1969). The Will to Meaning :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Y : New American Library. 의미에의 의지 : 로고테라피의 이론 과 실제. 분도 출판사.
- 이윤석 (1995). 도시지역 여성가장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지 (1995).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과 의미발견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사학위논문.
- 정소영 (1985).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 (1994). 상배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사회적 접근. 숭실대학사학위논문.
- 정진영 (1992).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집, 제7권, 11-33.
- 조성혜 (1998).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모자가족의 자조 집단 형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6(2), 한국여성개발원
-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심여대박사학위 논문
- 최해림, 장성숙 (1993).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하나의학사.
- 최상순 (1990). 일지역 성인의 영적안녕, 희망 및 건강 상태에 관한 관계연구. 연세대학사학위논문.
- 최인섭 (1995). 사별위기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경혜 (1993).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4), 127-150.
- Aguilera, D. C. (1990). Crisis Intervention: Theory and Methodology 6th ed. Mosby.
- Bankoff, E. A. (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827-839.
- Bursik, K. (1991). Correlates of Women's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Woman and divorce, 137-162.
- Clement, I. W., & Roberts, F. B. (1983). Family Health : A Theoretical Approach to Nursing Care. A Wiley Medical Pub.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Freeman Co., San Francisco.
- Crumbaugh, J. C., & Maholick, L. J. (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unster, Psychometric Affiliates.
- Dixon, C. S., & Retting, K. D. (1994). An Examination Income Adequacy for Single Women Two Years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2, 55-71
- Duffy, M. E. (1995).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Behaviors of Divorced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 The Haworth Press Inc.
- Faust, R. G. (1987). The Model of Divorce Adjustment for Use in Family Service Agencies. Social Work Journal. N.A.S.W., 32(1).
- Frankl, V. E. (1963). Man's Searching for Meaning-an introductuin to logotherapy. Washington Square Press, New York.
- Goetting, A. (1980). Divorce outcome research: Issues &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2, 350-378.
- Gove, W. R., & Shin, Hee-Choon (1989).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Hessen, J. 허세운 역 (1994). 현대에 있어서 삶의 의미, 이문출판사.
- Hodges, W. F. (1991).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 Custody, Access and Psychotherapy. Wil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 John Wily & Sons, Inc.
- Janet, G. K. (1986). Contemporary Women's Healt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Nielsen, K. (1980). Linguistic Philosophy and 'The Meaning of Life' in The Meaning of Life, S. Sanders & D. R. Cheney, Prentice-Hall, Inc., 129.
- Nowotny, M. S. (1989). Assessment of Hope in Patient with Cancer :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Oncology Nursing Forum, 16 (1), 57-61.

- Raschke, H. J. (1977). The role of social participation in post-separation and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 129-140.
- Travelbee, J. (1972). Interpersonal Aspect of Nursing. F.A.Davis Comp., 8th ed. Philadelphia, 1-24.
- Vanchon, M. L. S et al (1980). A Controlled study of Self-Help Intervention for Widow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80-1384.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4th ed.).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Key concept : Unemployed Matriarch, Group Counseling Program, Meaning in Life

##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Unemployed Matriarchs.

*Lee, Jeong Ji\* · Shin, Kyung Il\*\*  
Choi, Soon Ock\* · Kim, Sook Nam\*  
Lee, Boo Hye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program for unemployed matriarchs and show if the program affected their view on the meaning in life.

The subjects were women registered in an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 for unemployed matriarchs, which is being practiced in the 'Working Women Center' located in Busan. The researchers selected 44 persons from the group who agreed to our program.

This study was done from the 10th of March, 1999 to the 9th of October. The researchers used the measurement tools, The Purpose in Life, Self-esteem, Hope and Meaning in Life which was

composed of 63 items developed by them. Their Cronbach's alpha were .88, .79, .76 and .95.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data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Wilcoxon signed ranks test which were deduced from SPSS 10.0 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program is composed of 'becoming intimate', 'open-minded', 'exploration on self', 'relax of repressed emotion', 'self-acceptance', 'establishing the life-goal', 'enrichment of human relationship' and closing. It took 20 hours for this program to come into practice.
- 2)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general traits of all subjects, average age was 39.36. High school graduates were 86%, college graduates were 14% and divorce were 57%, bereavement were 18%, and the rest were 25%.
- 3) The result of 1st program showed self-esteem during the program was high.
- 4) The result of 2nd program showed self-esteem during the program was high.
- 5) The result of 3rd program showed the sum scores of meaning in life, creative meaning, and attitudinal meaning during the program was high.
- 6) The result of 4th program showed the sum scores of meaning in life and creative meaning during the program was high.

On the viewpoint of above results, we convinced that 'a program for unemployed matriarch is effective to establish a stronger meaning in life.

Therefore, it is demanded that support for unemployed matriarchs should not only be economic help such as technical training and help of living expenses, but also psychological,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upport.

\* Professor, Pusan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Lecturer, Pusan Catholic University